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120호 2020. 1. 26.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제1독서 : 이사야서 8,23ㄷ-9,3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0-13.17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4,12-23 또는 4,12-17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신부님 말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7지구 답십리 성당
박성준 프란치스코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책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말씀'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복된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중 제3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외치신 한 마디 말씀이랍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 나라! 듣기만 해도 기쁘고, 가보지 않았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하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는 곳,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 등등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곳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00미터 달리기를 생각해본다면, 한 95미터 정도 달려서 5미터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95미터를 달렸던 것처럼 남은 5미터도 열심히 달리는 것이지요. 하늘 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도착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나라가 내 앞에 도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바로 "회개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란, '뉘우치고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뉘우치고 어디로 돌아서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야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노력을 할 때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노력, 시작해볼까요?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① 사랑하여라 ② 회개하여라 ③ 축복하여라

도란도란 성경여행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 주다 (사무엘 상 19,1-7)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 주었다.
요나탄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말하였다.
사울은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 성경을 읽고 사울, 요나탄, 다윗의 그림자를 찾아 이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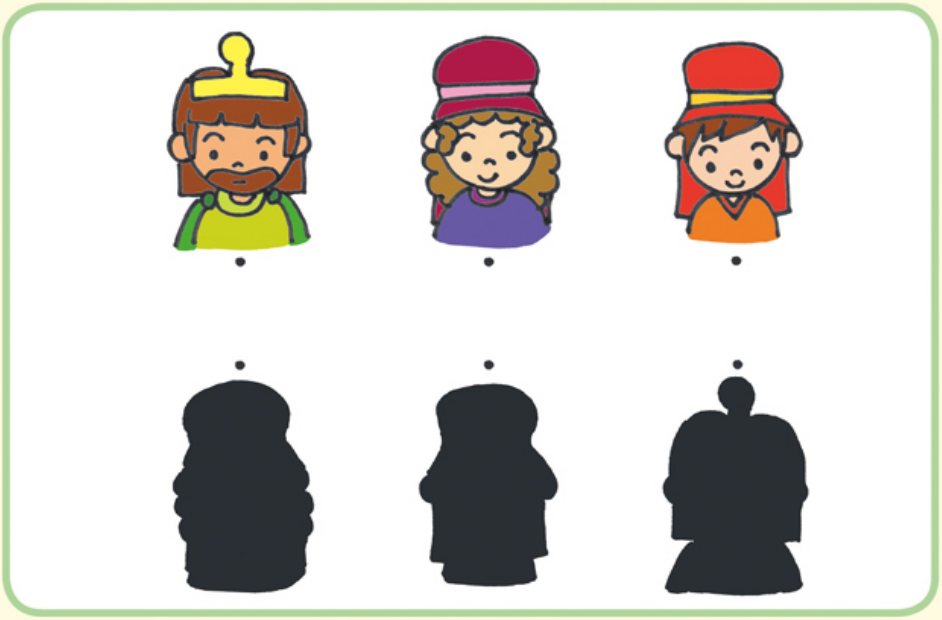

그림_ 송민경 도로테아

글/그림 이정현 베네딕토

◆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

우리들 솜씨

첫영성체의 즐거움

월곡동 성당 4학년
고민정 엘리사벳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영성체를 모시는 가족들이 부러웠다.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무슨 맛이 날까? 왜 10살이 되어서야 모실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엄마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나는 하도 궁금해서 10살이 되기를 기다리고 미사를 갈 때마다 첫영성체를 빨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이 되면서 드디어 첫영성체 교리를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영성체를 모실 생각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에 넘쳐 뛰어놀았다. 기도문 외우는 것과 일찍 성당에 가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성당에서 배우는 것과 가족과 교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성당에서 선생님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가족과도 교리를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더 은총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교리를 하면서 첫영성체를 하고 나면 영광스러운 복사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영성체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한 신부님을 제대 앞에서 도와드리면 예수님을 더 잘 알 것 같기 때문이었다.

첫영성체 날 신부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셨다. 내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제일 하고 싶던 시간, 드디어 처음으로 영성체를 모시는 시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신부님께서 성혈을 찍어서 성체를 주시는데 가슴이 쿵쾅거렸다.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고이고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소망대로 복사가 되어서 주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 가르쳐주신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들 솜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